

韓國古典詩論으로 본 蘆溪詩歌

崔 雄*

1. 序

蘆溪·朴仁老의 詩歌에 대한 이제까지의 接近은 歌辭 및 時調를 중심 대상으로 하여 주로 松江·鄭澈의 그것과를 對比하는 각도로 이루어져 왔다. 즉 松江의 時調나 歌辭는 그의 天賦의인 文學的 素質과 세련된 文章力을 바탕으로 유창한 詩語驅使의 경지를 보여줌으로써 蘆溪의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와 대비되어 그것이 지니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욱 크게 論議되고 지적되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蘆溪의 詩歌에 대한 기왕의 評價에서 時調는 주목될 수 없었고, 歌辭도 量的으로 多數라는 점과 作品의 스케일이 크다는 점 등, 作品이 지니는 本質的 水準에 대한 언급과는 거리가 먼 평가를 받아 왔으며, 漢詩는 이 部門에 대한 연구의 회소에 따른 學的 實情 때문인지 별로 분석의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西歐詩論의 傳統에서 抽出된 言語技巧에 중점을 두는 現代詩論의 眼目만으로써의 접근에서 비롯된 결과인 것이며, 또 작품 분석의 대상을 歌辭와 時調에만 국한시켰던, 곧 蘆溪詩歌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의 不在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로써 연구의 方法論上으로, 또한 연구의 過程上으로 본 이제까지의 蘆溪詩歌研究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自明한 일이 된다.

우선 方法論上에 있어서, 西歐의 詩論이 그네들의 文化圈속에서 창작되어 온 詩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창작의 지침을 제시하여 주기에 가장 알맞은

* 人文大 助教(國文學專攻)

방향으로 定立된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古典詩論과 古典詩歌와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古典詩論이 定立될 수 있다면 그것에 따라 蘆溪詩歌에 접근하는 방법도 마땅히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高麗中葉 이후로부터 舊韓末에 이르기까지에 著述된 '詩話'를 비롯하여 個人文集의 序·跋·文·說·辨·書等, 우리의 古典詩論을 定立할 수 있는 훌륭한 詩學的 資料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사이 이르러서는 이 방면의 연구도 제법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¹⁾ 따라서 이제 우리의 古典詩歌에 대한 접근방법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 시도되어야만 하겠다.

다음, 한 詩人의 作品世界の 眞面目을 파악하여 정당한 文學史的 評價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그가 남긴 모든 詩歌를 분석·검토의 대상으로 삼는 종합적인 연구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個個事象의 濾過된 축적이 歷史일진대, 文學史에 있어서도 일단은 先入觀을 버리고 모든 작품에 대한 濾過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蘆溪에 있어서도 문제되는 작품은 漢詩이다.

물론 韓國漢詩는 形態的인 면에서 중국의 그것을 그대로 借用했다는 데서 아무 거리낌없이 國文學의 作品으로 다루기에는 미흡한 先入觀的인 要素가 없는 바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先祖들이 漢詩나 歌辭 및 時調 등을 創作할

1) 그 研究業績의 大綱은 다음과 같다.

- 崔信浩 : 高麗詩話에 나타난 修辭에 대하여 (서울大 敎養課程部論文集 第2輯)
 初期詩話에 나타난 用事理論의 樣相 (古典文學研究 第1輯)
 鮮初의 文學理論 (古典文學研究 第2輯)
 文學理論에 나타난 '氣'에 對하여 (震檀學報 38號)
 閔丙秀 : 朝鮮前期 文學觀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 第1輯)
 趙鍾業 : 東人詩話研究 (大東文化研究 第2輯)
 李朝初期詩論의 傾向에 對하여 (忠南大論文集 第5輯)
 中世後期詩論研究 (語文研究 第5輯)
 全益大 : 麗朝詩學研究 (서울大 大學院 國文學研究 第26輯)
 鄭堯一 : 朝鮮前期詩學研究 (서울大 大學院 國文學研究 第36輯)
 拙稿 : 朝鮮中期詩學研究 (서울大 大學院 國文學研究 第32輯)
 鄭大林 : 朝鮮後期詩學研究 (서울大 大學院 國文學研究 第35輯)

때, 장르 선택에 있어서 깊은 의미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유독 漢詩에서 표출된 情緒의 世界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작품의 소재를 우리의 시대적 현실에서 取한 수 많은 漢詩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그 좋은 증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漢詩는 곧 時調나 歌辭 등 다른 詩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先祖들의 情緒를 담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로써 蘆溪의 詩歌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時調나 歌辭 뿐만이 아닌 漢詩까지도 분석·검토의 대상으로 하는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自明해졌다고 본다.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을 토대로 本考의 主眼點을 要約·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 ① 韓國古典詩論을 기반으로 하여 蘆溪詩歌에의 接近方法을 꾀한다.
- ② 蘆溪의 詩歌創作上的 源泉 및 特徵을 파악한다.

물론 그 目的은 韓國古典詩論의 定立 및 蘆溪詩歌의 眞面目을 파악하는 데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이다. 왜냐하면, ①을 통하여서 우리의 古典詩歌에 대한 접근 방법의 확장은 물론 우리의 文學現實에서 抽出된 傳統的인 詩論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效果도 기할 수 있으며, ②를 통하여서 蘆溪가 보여준 詩歌創作上的 源泉에 대한 근본 태도를 이해함으로써 그 結晶體인 作品에 대한 合理的인 解明을 기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2. 韓國古典詩論에서의 詩歌創作方法的 二主流

韓國古典詩論에 있어서, 詩歌創作方法上的 源泉을 밝혀주고 있는 것으로 旅庵 申景濬의 다음과 같은 見解는 매우 示唆的이다.

情·物·事는 詩의 材料이다.

鋪陳의 방법은 情·物·事의 實狀을 직접적으로 叙述하는 것이며, 影描의 방법은 詩人의 눈에 비친 情·物·事의 影像을 繪衆하는 것이다.(中略) 詩를 짓는 방법이

비록 많지마는 이 두가지 방법에서 출발되지 않은 것은 없다. (中略) 唐人은 光景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詩에 影描의 방법을 쓴 것이 많고, 宋人은 議論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詩에 鋪陳의 방법을 쓴 것이 많다.²⁾

申景濂은 먼저 인간의 情緒와 이 세상의 모든 事物 및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事件이 모두 詩의 素材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素材를 詩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으나 源泉의인 것으로는 鋪陳과 影描의 두 가지 방법으로 귀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鋪陳과 影描의 方法의 典型을 唐詩와 宋詩에서 찾았는데, 唐詩는 光景을 나타내는 것을 즐겨하였기 때문에 影描의 방법을 주로 썼고 宋詩는 議論을 세우는 면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鋪陳의 방법을 주로 썼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申景濂의 견해를 따르다면, 우리 東洋文化圈에 있어서 古典의 경우, 詩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체로 立議論의인 것과 述光景의인 것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으며, 그 표현방법으로는 立議論의인 내용의 경우에 鋪陳의 방법이 사용되었고 述光景의인 내용의 경우에 影描의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각각의 경우에서의 典型으로서 宋詩와 唐詩를 예로 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宋詩와 唐詩의 諸般特徵을 파악함으로써 立議論의 詩歌와 述光景의 詩歌의 諸般特徵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端緒를 제공해 주고 있음도 알 수가 있다.

둘론 申景濂의 이러한 견해를 그대로 우리의 古典詩歌에 대한 공변된 理論으로 받아들이기에 아무런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우리 古典詩歌의 내용과 표현방법이 과연 申景濂의 견해대로 크게 두 면으로 집약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古典詩歌의 내용을 크게 立議論의인 것과 述光景의인 것으로 보았고, 또 그 표현방법은 鋪陳의 방법과 影描의 방법으로 각각 대응된다고 보았던 申景濂의 견해가 전연 독단적인 것은 아니었던가?

2) 情物事 詩之材料也

鋪陳影描 鋪陳者 直叙其實也 影描者 繪衆其影也(中略) 詩之作法雖多 而無出於此二者矣(中略) 唐人喜述光景 故其詩多影描 宋人喜立議論 故其詩多鋪陳(申景濂: 旅庵遺稿, 卷八, 雜著二, 詩則)

둘째, 설령 申景濬의 이러한 견해가 공변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독 漢詩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지 國文詩歌에는 적용될 수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나 첫째의 경우, 申景濬이 ‘詩則’을 著述하게 되었던 동기를 살펴 보면 그가 詩에 대한 理論을 전개함에 있어 독단적인 견해를 피력하여 놓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으니 다음과 같은 ‘詩則’의 序文은 그 좋은 例文이 될 것이다.

무릇 詩라고 하는 것은 文章의 한가지 技藝에 지나지 않지만 詩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물며 그 나머지 것에 있어서라. 내가 甲寅年에 온천에 머물러 있을 때 어린 학생이 詩를 물어 왔다. 그래서 古書에서 얻은 지식과 스승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보고 들은 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그 微妙하고 深奧한 詩의 경지는 내가 능히 窮究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圖書로써 다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³⁾

詩를 묻는 어린 학생에게 ‘詩則’을 著述하여 詩를 가르치고자 한 의도를 밝히 들어내고 있는 文章인데, ‘古書에서 얻은 지식과 스승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하여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는 데서 ‘詩則’이 申景濬 자신의 독단적인 견해를 피력한 詩論書라기 보다는 기왕의 詩論들을 토대로 한 종합적인 詩論書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이 아울러 드러나고 있다 하겠다.

둘째의 경우, 우리의 古典詩評에 있어서 중심되는 대상작품이 漢詩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評者에 따라서는 간혹 우리말로 된 歌辭나 時調도 漢詩를 評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과 방법으로 詩評의 대상작품으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있었으니,⁴⁾ 이러한 사실은 곧 우리의 先祖들이 漢詩를 國文詩歌보다 優位에 놓았었다고 볼 수는 있을 망정 漢詩의 情緒世界와 國文詩歌의 그것을

3) 夫詩者 抵一文章之藝也 知之者亦鮮 況其餘乎 歲在甲寅 余旅居溫水之陽 有童子問詩者 遂以得於古書及聞於師友者 輯爲一卷以與之 然其微妙之奧 非余之所能究 亦非圖書之所可盡也(上揭書)

4) 松江·鄭澈의 歌辭에 대한 金萬重의 ‘西浦漫筆’에서의 評, 歷代歌·勸善指路歌·俛仰亭歌·思美人曲·關東別曲 등 歌辭 10餘首에 대한 洪萬宗의 ‘旬五志’에서의 評 등은 그 좋은 例라 할 것이다.

전연 별개의 것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고 오히려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 준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申景濬의 '詩則'에서 제시된 詩論이 독단적인 것이 아니고 기왕의 詩論들을 토대로 한 종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며, 우리의 선조들이 漢詩의 情緒世界와 國文詩歌의 情緒世界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암시해 주는 것일까?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古典詩歌의 창작방법상에 있어서 그 源泉의인 것으로 立議論의인 내용과 鋪陳의 표현방법, 述光景의 내용과 影描의 표현방법이 각각 照應된다고 보았던 申景濬의 견해를 공변된 것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고, 또 이것은 漢詩의 경우는 물론 國文詩歌의 경우에도 두루 통용될 수 있는 一般詩論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宋詩와 唐詩의 제반 특징을 토대로 立議論의 詩歌와 述光景의 詩歌의 제반 특징을 좀더 자세히 고찰하기로 하자.

(1) 立議論의 詩歌

漢詩가 중국으로부터 流入·借用되었던 관계로 中國詩壇의 詩風은 한국의 詩人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이에서 파생된 詩論에 있어서도 論者에 따라 唐의 詩風을 좇아야 한다든지, 宋의 詩風을 따라야 한다든지 하여 詩歌創作上的 源泉에 대한 論難이 있었음도 물론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엄두에 둔 각각의 방법론이 이미 중국에서 있어온 것을 본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文學의 보편성을 생각할 때, 그 주장이 각자의 문학관에서 비롯되어 論理를 지닌 것이라면 이는 곧 우리 선조들의 詩歌精神의 產物로 간주되어도 무방할 것이다.

대체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朝鮮王朝 前期(宣祖以前)에 宋의 詩風이 존중되었던 것같으니 그 典據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朝鮮王朝를 말함: 筆者註)의 詩人은 대체로 蘇軾과 黃庭堅(둘다 宋의 詩人: 筆者註)을 존중하여 200년 동안이 한 모양이다. 近世에 이르러 崔慶昌·白光勳들이 唐을 배우기 시작했다.⁵⁾

5) 我東詩人 多尙蘇黃 二百年間皆襲一套 至近世 崔慶昌 白光勳 始學唐(李晳光: 芝峯類說, 卷九, 文章部二, 詩)

우리나라의 詩는 蘇軾과 黃庭堅을 爲主로 했다.⁶⁾

좀더 具體的으로 말한다면, 李朝 初期로부터 中明宗까지는 高麗詩風の 延長期라고 볼 것이어서 宋詩文學을 따랐다가도, 宣祖朝에 들어서는 唐을 追從하게 되어, 詩風에 一大轉換이 일어났던 것이다.⁷⁾

그러면 이렇게 朝鮮王朝 前期에 우리의 詩人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宋의 詩風과 그 形成要因은 어떤 것이었는지 중국의 詩論家나 文學史家들의 견해를 빌어 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宋을 말함: 筆者 註)의 詩는 理만을 존증하여 意에 病이 되었다.⁸⁾

宋人은 詩에 入륙한 것이 없다. 소위 존증된 것이 一字一句의 對偶나 雕琢上的 技巧에 불과한 것이어서 天真한 興致를 내세울 것이 없다.⁹⁾

宋人은 詩를 모르면서 억지로 詩를 쓴다. 그 詩는 理만을 말할 뿐 情을 말하지 않으니 결국 宋代에는 詩가 없다.¹⁰⁾

散文體의 運動과 理學의 盛行은 當時의 詩壇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으니, 典雅·華麗한 꾸밈을 피하고 散文式의 明白淺顯함으로 치닫게 되었으며, 美人·香草의 私情·愛慕를 피하고 各種의 議論 발취에 들어 가게 되었다.¹¹⁾

이로써 보자면, 宋의 詩風은 情의인 면 보다는 理的인 면에 치우쳐 순수 情緒의 美的 形象化 보다는 議論 발취에 중점을 두었고, 全篇을 詰鍊하여 詩의 美意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修辭上的 技巧와는 관계없는, 字句마다의 意理를 明白히 함에 집착하는 一字一句上的 雕琢에만 힘을 기울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은 散文의 興起와 함께 性理學(朱子學)이라는 思想的 背景 아래에서 형성되었던 것임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들이 모두 宋의 詩風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에서 피력

6) 本朝詩學以蘇黃爲主(許筠: 鶴山樵談)

7) 文叢室: 韓國漢文學史 p. 170.

8) 本朝尙理而病於意(嚴羽: 滄浪詩話)

9) 宋人於詩無所得 所謂法者 不過一字一句對偶雕琢之工 而天真興致 則未可與道(李東陽: 懷麓堂詩話, 中華書局編輯部: 中國文學發達史 p. 655. 再引用)

10) 宋人不知詩而強作詩 其爲詩也言理而不言情 終宋之世無詩(陳子龍: 與人論詩, 上揭書, p. 655. 再引用)

11) 因着散文體의 運動, 與理學의 盛行, 當日의 詩壇受了這種影響, 避開典雅華麗의 雕鍊, 而走到散文式의 明白淺顯, 避開美人香草의 私情愛意, 而入於各種議論의 發揮(上揭書 p. 655.)

된 것들이기는 하나, 단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통하여 오히려 대표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 대체적으로 공변된 견해로 보아도 별 두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韓愈를 정점으로 한 唐代古文運動家の 載道の 文學觀은 宋代的 古文運動을 거쳐 朱子學의 文學觀으로 자리잡게 되는 바,¹²⁾ 如上과 같은 宋詩의 경향과 형성요인으로 보아 그것은 곧 朱子學의 載道の 文學觀과 不可分の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보아 마땅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朱子學의 最全盛時代인 朝鮮初로부터 宣祖朝에 이르기까지 宋의 詩風이 존중되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立議論的 詩歌와 宋詩 및 載道の 文學觀이 一脈相通하는 것들이 밝히 들어난 셈이 된다.

그러면 계속하여 載道の 文學觀 및 宋詩에 대한 論議를 토대로 하여 立議論的 詩歌의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되, 우리의 古典詩論에 있어서의 詩의 방법상 중요 요소인 設意, 表現・修辭, 聲律 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朝鮮初 載道の 文學觀을 지닌 대표적 인물이었던 徐居正(世宗~成宗)¹³⁾의 詩의 設意면에 대한 규범의 제시로서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立議論的 詩歌의 設意方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詩는 숨쉴됨이 있어 뜻이 드러나지 않음을 貴하게 여긴다. 그러나 모호한 말이나 은근한 말을 써서 뜻이 明白・痛快하지 않음도 역시 큰 病이 된다.¹⁴⁾

文學이 道理를 실음으로써 人倫・道德을 양양하여 時俗의 教化를 이룩해야 한다는 載道の 文學觀으로 본다면 詩에서 말하고자 하는 意境이 明快하게 들어나야만 한다. 만일, 作者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은근하거나 감추어져 있어 餘韻을 남긴다면 讀者는 感賞過程에서 자기의 想像力을 마음껏 펼

12) 拙稿: 朝鮮中期詩學研究, 서울大 大學院 國文學研究 第32輯, pp. 21~30. 參照.

13) 上揭論文, pp. 31~38. 參照

14) 詩貴含蓄不露 然微詞隱語不明白痛快 亦詩之大病(徐居正: 東人詩話)

쳐 作者가 원래 의도하는 바를 曲解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載道的 文學觀이 指向하는 바 功利的 效用性은 기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載道的 文學觀을 지닌 대표적 인물이었던 徐居正이 指向하는 詩歌가 載道的 文學觀과 깊은 관련을 갖는, 곧 載道的 文學觀이 指向하는 詩歌인 立議論의 詩歌임은 구구한 설명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立議論의 詩歌의 設意方法은 詩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意境이 明白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점이 밝혀진 셈이다.

詩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意境이 明白・痛快하려면 표현이 자세하고도 直叙의 이어야 한다. 따라서 詩經 六義에서 기본 표현법으로 제시된 賦・比・興으로 본다면 賦의 방법이 이에 적합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立議論의 詩歌의 기본적인 표현방법이 鋪陳의 방법이라고 한 앞서의 申景濬의 견해는 要諦를 얻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詩는 散文과는 달라서 고도의 압축된 표현을 필요로 하며 선율이 중요시되는 것이기에 같은 鋪陳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좀더 효과적인 표현법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功利的 效用性을 목표로 하는 載道的 文學觀의 입장으로 본다면, 詩는 一字一句마다 사람을 놀랄만한 驚語나 驚句가 되어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어야만 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더욱 절박하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宋代를 絶頂으로 하여 文章 修辭法의 하나인 典故修辭, 곧 用事¹⁵⁾가 立議論의 詩歌를 지향하는 載道的 文學觀을 지닌 文人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徐居正은 그 대표적 인물로서, 그는 그의 詩論・詩評書라 할 ‘東人詩話’의 殆半이 넘는 부분을 用事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用事の 연원을 밝힌 梁나라 劉勰의 견해를 보면 用事が 載道的

15) 用事に 對한 定義는 崔信浩 교수에 의하여 일목요연하게 내려지고 있다.

“用事란 말할 것도 없이 經書나 史書 또는 諸家の 詩文이 가지는 特徵的인 觀念이나 事迹을 二・三의 語彙에 集約시켜서 元觀念을 補助하는 觀念蘇生이나 觀念倍化에 採用하는 修辭法이다”(崔信浩: 初期詩話에 나타난 用事理論의 樣相, 古典文學研究, 第1輯 p. 117.)

文學觀을 지닌 文人들에게 각광을 받았던 이유를 알 수 있다.

用事は 外的인 것, 事를 들어 뜻을 돕고 옛것을 이끌어 지금의 것을 밝히는 것이 다. (中略) 그런즉 文辭를 이룸에 있어 理를 밝히 인도하고 人事에 있어 義를 증거 하여 이끌으니 이에 聖賢의 큰 계책은 經籍의 법도가 되었다. 크게 비추되어 있으니 君子는 지나간 言行을 많이 압으로써 文章에 포함시키는 것이 있다. (中略) 崔·張·班·蔡들은 드디어 經典·史書에서 습득하여 文辭가 實하고 얻음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功을 이루었으니 모두 後人의 모범이 되었다.¹⁶⁾

곧 用事は 經典중시의 태도에서 비롯되는데 사실, 道理를 가장 明白하게 표현하였던 文章인 經典, 그렇기 때문에 載道的 文學觀으로 볼 때 文學作品의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經典이었기에 그 經典에서 표현되었던 내용은 立議論의 詩歌를 지향하는 載道的 文學觀을 지닌 文인들이 二·三의 어휘로 압축시켜 詩句節로 이용하기에 가장 적합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用事の 修辭法이 크게 각광을 받게 됨에 따라 점차 經典 뿐만이 아닌 史書, 유명한 文句 또는 詩句를 빌려오게 되었음은 필연적인 귀결이라고 하겠는데, 이에 이르면 典例 혹은 前例를 중요시하게 되어 마음에 드는 典例(前例)가 있다면 聲律上的 조화에 앞서 채택·이용될 공산이 클 것이다. 따라서 비록 漢詩의 경우에라도 用事를 중시하는 載道的 文學觀을 지닌 文인들이 지향하는 立議論의 詩歌에서는 聲律上的 규칙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載道的 文學觀을 지닌 대표적 인물이었던 徐居正이 ‘東人詩話’에서 李奎報의 三百韻詩가 一韻重押한 것에 대하여 중국의 杜甫·蘇軾 뿐만 아니라 魏晉時代의 詩人들도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하여 押韻에 대한 破格을 정당화시키고 있음¹⁷⁾은 그 좋은 증거가 된다.

16) 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證今者也(中略)然則明理引乎成辭, 徵義舉人事, 迺聖賢之鴻謨, 經籍之通矩也, 大畜之象, 君子以多謙前言往行, 亦有包於文矣(中略)至於崔班張蔡, 遂摛摛經史, 華實布漫, 因書立功, 皆後人文範式也(劉勰: 文心雕龍, 第三十八, 事類)

17) 或問李文順三百韻詩 重押二施字二祇字 有何所祖乎 余曰 杜甫八仙歌 知章騎馬似乘船 天子呼來不上船 重押二船字 眼花落井水底眠 長安市上酒家眠 重押二眠字 汝陽三斗始朝天 舉觴白眼望青天 重押二天字 皎如玉樹臨風前 脫帽露頂王公前 蘇晉長齋繡佛前 三押前字 又蘇子瞻送王公著詩 忽憶釣台歸洗耳 又曰 亦念人生行樂耳 自註曰 二耳字義不同 故得重押 余謂一韻重押 蘇杜尚然 非但蘇杜 魏晉諸集中多有之 獨何怪於李乎(徐居正: 前揭書)

(2) 述光景의 詩歌

崔慶昌·白光勳 등 世稱 三唐派의 詩人이 활동하였던 宣祖朝를 本수령으로 우리 나라의 詩風에 唐을 追從하자는 기운이 맹배되었음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러면 우선, 朝鮮中期(宣祖~光海)에 脫載道的 文學觀을 보였던 許筠과 李睟光¹⁸⁾을 통하여 立議論의 詩歌의 典型인 宋詩를 배격하고 述光景의 詩歌의 典型인 唐詩를 존중하는 이유를 들어 보자.

詩의 原理는 詳盡·婉曲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은 다하여도 뜻은 계속되는 데에 있다. 卑近한 것을 다루되 詩趣는 멀어 理路에 빠지지 않고 말의 그물에서 탈피해야 가장 좋은 것이 된다. 唐人의 詩를 따르면 종종 비숫한 경지까지 가게 된다. 宋代의 作者들이 적다고는 못하지만 모두 뜻을 다 나타내고자 하여 用事에만 힘써서 險韻·窳押으로써 스스로 格을 해치고 있다.¹⁹⁾

唐人이 詩를 쓸 때에는 오로지 詩想과 興趣에만 힘써서 用事가 많지 않았다. 宋人이 詩를 쓸 때에는 오로지 用事만을 존중하여 詩想과 興趣가 보이지 않는다.²⁰⁾

許筠에 의하여 지적된 宋詩 배격의 주된 요인은 理에 치우쳐 뜻의 전달에만 몰두했다는 것과 修辭法上으로 用事に 치우쳐 있고 그래서 聲律上 무리가 따른다는 점이다. 또 李睟光에 의하여 지적된 그것은 詩想과 興趣에는 등한시하고 오로지 用事의 技巧에만 전념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許筠에 의하여 피력된 唐詩 존중의 주된 요인은 뜻이 매우 함축적이어서 餘韻을 남길 수 있는 경지에 접근한다는 점이다. 또 李睟光에 의하여 피력된 그것은 詩想과 興趣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를 종합하여 보면, 唐詩는 議論을 세워 효과적으로 뜻을 전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던 宋詩와는 달리 情緒를 좀더 순수하게 美的으로 形象化시키는 데에 중점이 두어졌음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詩가 情緒를 순

18) 拙稿：前揭論文，pp. 54~64，參照。

19) 詩之理 不在於詳盡婉曲 而在於辭絕意蘊 指近趣遠 不涉理路 不樂言筌 爲最上乘 唐人之詩 往往近之矣 宋代作者 不爲不少 俱好盡意而務引事 且以險韻窳押，自傷其格(許筠：惺所覆顏箋，卷四，文部一，宋五家詩鈔序)

20) 唐人作詩 專主意興 故用事不多 宋人作詩 專尙用事而意興則少(李睟光：前揭書，卷九，文章部二，詩)

수하게 美的으로 形象化시키는 데에 중점을 둘 때, 修辭法上 用事는 별반 치중할 것이 못되고 아울러 聲律上的 조화로움이 중요시된다는 사실도 인식할 수 있다.

唐이 思想의 완전한 개방상태였고 또 이러한 현실이 唐代 文學에 新鮮한 生命과 情調를 낳게 하는 一面의 요인이 되었음은 中國文學史에서 지적되고 있는 바다.²¹⁾ 따라서 詩人은 載道的 文學觀을 떠나서 좀더 자유로히 詩의 素材를 선택하고 美的 形象化를 이룩하여 詩가 지니는 美的 生命력을 구가할 수 있었기에 唐이 中國文學史上 詩의 絶頂期로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보아도 지나친 억측은 아닐 것이다.

詩人이 情緒를 순수하게 美的으로 形象化하려면 宇宙의 造化를 바라보고 自然의 攝理를 포착해야 한다. 美的 眞實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그것을 形象化시키자면 우선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自然의 森羅萬象을 窮究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자면 눈앞에 전개되는 光景을 투시하는 능력이 先行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情勢를 순수하게 美的으로 形象化하는 데에 詩의 關鍵이 있었던 唐詩가 述光景의인 詩歌의 典型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제 述光景의인 詩歌와 唐詩 및 脫載道的인 文學觀이 一脈相通하는 것들이 밝히 들어난 셈이다.

그러면 계속하여 脫載道的인 文學觀 및 唐詩에 대한 論議를 염두에 두고 述光景의인 詩歌의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자. 역시 設意, 表現·修辭, 聲律 면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앞서의 唐詩 존중의 이유에서 피력된, 뜻이 매우 含蓄의이어서 餘韻을 남기기 때문이라는 許筠의 견해와 興趣가 있다는 李暉光의 견해에서 述光景의인 詩歌의 設意方法은 이미 대변된 셈이다. 그러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예를 許筠에게서 들어 보자.

21) 由儒釋道三教的並盛, 與祇教摩尼教回教的流布, 形成思想界的活躍與自由(中略)文學在這種現況下, 自然也跟着這偉大的時代潮流, 而現出新鮮的生命與情調(中華書局編輯部: 前揭書, p. 327.)

思菴(朴淳: 筆者註) 相公이 別世하자 挽詞가 거의 수백 편이었다. 그러나 홀로 牛溪·成潭의 絕句 한 수가 가장 絕唱이었다. 그 詩에 이르기를(中略), 限없이 傷心해 하는 뜻이 말의 表面에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서로 알아줌이 깊지 않았으면 어찌 이런 작품이 있었겠는가.²²⁾

自然의 森羅萬象에서 美的 眞實을 포착하여 그것을 形象化시키는 것에 詩의 關鍵이 있다고 보는 脫載道的 文學觀으로 볼 때, 詩의 意境은 무한한 것이 되며 또 그 무한한 意境은 讀者에게 무한한 美的 體驗과 感興을 맛볼 수 있도록 餘韻을 남겨야만 한다. 따라서 挽詞를 지을 때에 傷心해 하는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絕唱으로 여기고 있는 許筠의 위 例文에서, 意境이 含蓄됨이 述光境의 詩歌의 設意方法임은 밝게 들어나고 있다 하겠다.

詩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意境이 含蓄的인 것이 되려면 표현이 압축적이면서도 比喻的이어야 한다. 따라서 詩經 六義에서 기본 표현법으로 제시된 賦·比·興으로 본다면 比나 興의 방법이 이에 적합할 것임은 분명한 일이다. 이렇게 볼 때, 述光境의 詩歌의 기본적인 표현방법이 影描의 방법이라고 한 앞서의 申景濂의 견해는 要諦를 얻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압축적이면서도 比喻的인 표현에 힘을 기울인다면 詩가 지녀야 할 고도의 압축성과 선율미는 자연히 이룩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脫載道的 文學觀을 지닌 文人들에게 詩의 修辭法으로 각광을 받는 것은 比喻法이겠고, 문학작품의 모범으로서 經典을 중요시하였던 태도에서 비롯된 用事의 修辭法은 별로 각광을 받지 못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比喻的인 修辭의 的實을 얻으려면 깊은 慧眼으로 元觀念과 補助觀念 사이에 同質性을 찾아야 하는 바, 이렇게 하자면 事象이나 事物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典例나 前例에 몰두하는 것보다 더욱 시급하겠기 때문이다.

漢詩의 경우에서 볼 때, 典例(前例)를 기반으로 하는 用事의 修辭法이 별

22) 思菴相公舍 挽歌殆數百篇 獨成牛溪一絕爲絕唱 其詩曰(中略)無限感傷之意不露言表 非相知之深 則焉有是作矣(許筠: 前揭書, 卷二十五, 說部四, 惺叟詩話)

로 사용되지 않는, 또 情緒의 美的 形象化에 중점을 두는 脫載道의 文學觀이 지향하는 述光景의 詩歌에서는 聲律上的 규칙은 그만큼 지키기 용이하고 또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聲律上的 규칙은 선율미를 의식하여 이룩되어온 것이겠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詩는 어떠하여야 極致的 경지인가? (中略) 읊조림에 있어서 聲律에 病이 없고(中略), 이래야 詩라고 이를 만하다.²³⁾

道學의 外에 經學과 史學도 중요하다. 字學도 역시 欠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다. 비단 字義만이 아니라 音韻·高底 같은 것을 많이 알지 못한다. 이래가지고서 함께 詩를 論할 수 있겠는가?²⁴⁾

위의 引用文은 각각 脫載道의 文學觀을 보였던 許筠과 李睟光의 견해인바, 그들이 지향했던 것이 述光景의 詩歌인 점으로 보아 어느것이나 다 聲律上的 규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의 좋은 증거가 된다고 하겠다.

3. 蘆溪詩歌의 立議論의 諸面貌

(1) 蘆溪의 立議論의 詩歌趣向

蘆溪·朴仁老의 生存時期는 1561(明宗 16)年~1642(仁祖 20)年으로써, 이 시기는 바로 朝鮮王朝의 封建秩序가 동요되기 시작하는 계기를 이루었던 壬辰·丙子の 兩亂期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시기이었다.

특히 壬辰亂은 朝鮮王朝 開國以來 일찌기 없었던 戰亂으로서 이 亂이 준 피해와 의의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니, 그 중에서도 농촌의 피폐로 인한 財政의 곤란, 신분 질서의 동요로 인한 人倫의 문제 등은 곧바로 朝鮮王朝의 封建統治秩序와 직결되는 것들로서 당시의 지배층들로서는 우선 척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이었다.

따라서 당시 지배층들의 自我反省에 따른 움직임은 대체로 재정의 복구와

23) 然則 詩何如而可造極耶(中略) 鋪叙不病於聲律(中略) 則可謂之詩也。(上揭書, 卷十二, 文部八, 詩辨).

24) 道學之外 經學史學尙矣 至於字學 亦不可欠而我國人鮮能致意 非但字義如音韻高底多不了解 如是而可與論詩乎。(李睟光: 前揭書, 卷七, 文章部, 字音)

사회질서의 회복에 주안점이 두어졌으니, 前者에 치중하여서는 後世 實學의 싹을 트였고, 後者에 치중하여서는 人倫에 근본을 두는 朱子學의 理論深化가 더욱 조장되었다.

이제 李相寶 교수의 ‘朴蘆溪研究’의 성과를 빌어 蘆溪의 家門 및 交遊關係를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蘆溪는 密陽 朴氏로 始祖가 朴赫居世요, 中祖가 高麗時代 大提學 典祀令까지 지냈다는 사실만이 그의 家系에서 빛날 뿐, 별로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寒微한 家門에서 출생했다. 따라서 그의 成長期의 師事관계라든지 同學관계는 찾아볼 길이 없다. 그리고 그가 官職에 오른 것은 壬亂直後, 1599(宣祖 32)년 武科에 급제함으로써인데 크게 영달은 못하였고 微官未職인 守門將, 宜傳官, 助羅浦 萬戶 등의 벼슬을 지내었다.

그의 중요 交遊關係를 보면, 出仕以前인 32歲까지는 주로 鄭世雅 一家와 成允文과의 관계인데, 주로 武人的 生活로서 그는 鄭世雅 一門이 壬亂時 義兵을 일으킬 때 그 밑에 彙集한 六十餘人中的 한 사람으로, 이때를 계기로 鄭世雅의 子인 宜落 등과 孫인 好義·好禮 등과는 老後까지 교제가 계속되어 詩文을 주고 받기까지 하였으며, 成允文의 幕下에서 잠시 종군하기도 하였다.

出仕以後 晩年까지는 주로 李德馨, 鄭述, 張顯光 등과의 관계인데, 특히 이들과의 관계는 老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武人生活를 청산하고 性理學에 눈을 떠서 山水를 찾아가거나 書院을 參訪하여 聖賢의 道를 談論하고 遭風을 흠모하는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蘆溪는 先天的으로 詩歌에 대한 才質은 갖추고 있었던 것 같으니, 13歲 때 ‘戒勝吟’이란 七言絶句를 지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鄭癸陽의 ‘朴公行狀’의 “글자를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스스로 해독하고(不敎字 而自能通解)”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文人으로서의 특별한 수련을 쌓지 않았던 것 같으면서도 武人으로서의 시절이었던 文人으로서의 시절이었던 善歌者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고 있음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以上에서 본 蘆溪의 生存時代의 情況 및 그의 家門, 交遊關係, 詩

歌에 대한 才質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의 판단이 가능하다.

첫째, 戰亂의 피폐 상황은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널리 匡救策을 세우게끔 하는 기운을 조장시킨다. 따라서 각종의 議論을 세우는 풍조가 사회에 만연될 수 있다.

둘째, 蘆溪의 寒微한 家門으로 보아 門閥 勢家の 子弟들과 어울려 著名한 스승 밑에서 수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학업은 심원한 國家 經營의 道를 窮究한다거나 오묘한 眞理를 窮究하는 경지에까지 정진했다기 보다는 修身의 道理, 곧 人倫을 인식하는 정도에서 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그의 交遊人物로 보아 그 관계는 주로 영향을 주는 입장보다는 영향을 받는 입장에 섰을 것이다. 비교적 鄉裡의 巨族에 속하여 義兵將으로 활약했던 鄭世雅나 政界의 중심인물인 李德馨, 著名한 性理學者로 손꼽히는 鄭述 및 張顯光, 어느 누구도 연령이나 學識 및 人格으로 蘆溪가 追尊할 만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그의 學의 水準으로 볼 때, 鄭世雅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武人氣質을 보였던 시절에는 주로 忠·孝를, 李德馨·鄭述·張顯光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文人氣質을 보였던 시절에는 주로 誠·敬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座銘으로 깊이 새기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議論을 세워야만 하는 社會의 情況과 人倫 특히 忠·孝·誠·敬을 마음 깊이 새기게끔 영향을 받았던 交遊人物과의 관계는 자연히 蘆溪의 詩歌에 대한 才質을 忠·孝·誠·敬을 驅歌하는, 곧 載道的 文學觀의 立議論의 詩歌趣向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음은 쉽사리 짐작되는 바이다. 왜냐하면, 詩歌에 대한 才質은 그만큼 창작충동이 왕성함을 보여 주는 것이겠고 마음속 깊이 새긴 座銘은 곧 창작의 결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蘆溪의 詩歌風에 대하여 말한 ‘朴公行狀’에서의 다음과 같은 寸評은 요령을 얻은 것이라 하겠다.

公이 莎提曲으로써 忠孝를 나타내니 漢陰 相圖이 반복하였다. 자연 경치가 아름답

다운 곳에 찾아가면 문득 단정히 앉아 詩歌를 읊어 마음속 깊이 잔직한 생각을 잊다. 무릇 모두 座銘이 되는 말들이다.²⁵⁾

(2) 設意面

‘嶺南歌’의 “嶺南千里外에 壬辰變後 나른 百姓 賊路初頭에 어니 世業 가질 년고 遺墟蕪沒호더 草屋數間 디어 두고 陳荒薄田을 가다 일러 갈리런고 又도 多事호더 賦役이나 적을 년가”에서 볼 수 있듯이, 蘆溪는 戰亂 후의 비참한 생활상을 깊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 그러한 생활상으로 인하여, ‘陋巷詞’에서 그가 소를 빌리러 갔다가 창피만 당한 대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익추구로의 각박해진 世態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상은 詩歌에 대한 才質을 지닌 蘆溪로 하여금 무엇인가 개선책에 대한 詩的 立論을 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그의 立議論的 詩歌趣向으로 볼 때 그것은 곧 人倫을 顯歌하는 방향으로 될 수 밖에 없었다.

사실 蘆溪의 詩歌를 일별하여 보면 歌辭나 時調, 漢詩를 막론하고 어느것이나 忠·孝·誠·敬으로의 立議論的인 意境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天地間 萬物中에 사물이 最貴호니
最貴호 바는 五倫이 아니온가
사물이 五倫을 모르면 不遠禽獸 호리라. (蘆溪先生文集 卷三)

仔細히 살펴보면 뉘 아니 感激호리
文字는拙호되 誠敬을 삭여시니
진실로 熟讀詳味호면 不無一助 호리라. (蘆溪先生文集 卷三)

歷山에서 발같이한 舜임금은 누구인가
伊尹 또한 聖賢으로 莘野에서 발갈았네
옛 聖賢 모두 이같이
늙은 이 몸 어찌 홀로 발같이 앉겠는가 (蘆溪先生文集 卷一)²⁶⁾

좁주림이 발같이에 있다고 그 누가 말했는가
이 말 믿을진대 발같이 필요없네
밤 한 덩어리 물 한 모금이 어찌 고생이리오

25) 公作莎堤操屬以忠孝 相國歎服 善歌什 遇一樹梢清陰處 輒高拱跌坐 朗吟以遠懷 大抵皆箴戒語也(鄭葵陽：朴公行狀，蘆溪先生文集，卷二，附錄)

26) 舜何人也歷山耕 伊尹又賢莘野耕 古昔聖賢皆若此 此翁何獨不躬耕

배꼽 밑만한 땅이라도 밭같이 배우리라

(蘆溪先生文集 卷一)²⁷⁾

앞의 時調 두首는 ‘五倫歌’ 25首中 總論에 해당하는 작품인데, 五倫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을 내세워 五倫의 중요성을 뚜렷이 인식시키려 하였고, 아울러 美的 形象化보다는 내용상의 立論에 文學의 關鍵이 있다는 載道的 文學觀을 피력하여 五倫歌를 지은 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뒤의 漢詩 두首는 ‘耕田歌’ 10首中의 其一과 其九인데, 聖賢의 행적을 부각시켜 勸農의 실효를 거두려는 意境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어느것이든 忠·孝·誠·敬에 대한 立論의 意境을 露呈하고 있는 좋은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詩的인 素材 자체부터 뚜렷하게 立論의 입안점이 내포될 수 있는 경우를 且置하고서라도 蘆溪의 작품에서 立論의 意境이 명확하게 드러난 例를 찾기란 여간 용이한 일이 아니다.

以下 몇몇 작품을 들어 그 例로 삼고자 한다.

無狀한 우리 물도 臣子되야 이서다가 君恩을 못감흔가 敢死心을 가져이서 七載를 奔走터가 太平 오늘 보완디고 (太平詞, 蘆溪先生文集 卷三)

臣子] 되야 이서다가 窮達이 길이 달라 몬 외옵고 늘거신들 憂國丹心이야 어니 刻에 이즐넉고 (船上歌, 蘆溪先生文集 卷三)

萱堂老親은 八旬이 거의거든 湯藥을 그치며 定省을 뷔웁던가(中略) 許由의 시스꺼에 老來者의 오슬 입고 암외에 저 솔이 풀은 쇠 되도록 함께 되서 늘그리라 (莎堤曲, 蘆溪先生文集 卷三)

無狀한 이몸에 무슨 志趣 이스리마는 두세 이렇 맞논을 다 무겨 더더두고 이서면 粥이오 업서면 굴물망경 남의 집 남의 거스 전허부러 말렸노라(中略) 簞食瓢飲을 이도 足히 너기로라 平生 糗 糒이 溫飽에는 업노왜라 太平天下에 忠孝를 일을 삼아 和兄弟 信朋友 외다 후리 뒤 이서리 그 맞거 남은 일이야 삼긴 더로 살렸노라 (陋巷詞, 蘆溪先生文集 卷三)

반가울사 오늘 꿈에 首陽總士 보완제고

正色 愾然하고 날드려 하는 말슴

至今에 叩馬하던 忠義를 못너 이저 하더라. (慕賢, 蘆溪先生文集 卷三)

27) 誰云飢餓在於耕 若信斯言不必耕 簞食一瓢何足苦 丹田方寸學耘耕

어리석고 못한 몸이 草野에 묻혔이나
 나라 걱정할 때마다 정신은 더욱 새롭네
 임금님의 은혜 다 못갠 몸이 먼저 늙으니
 임금계신 서울 바라 눈물만 흘리노라 (述懷, 蘆溪先生文集 卷一)²⁸⁾

따라서 蘆溪詩歌의 意境의 指標는 忠·孝·誠·敬 곧 人倫을 창달하는 면으로 귀결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詩歌에서 보여지는 安貧樂道의 意境도 人倫을 창달하기 위한 보조적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孤山·尹善道의 漁夫四時辭와 같은 自然과의 完全同化의 경지를 보여주는 作品을 蘆溪의 詩歌에서 찾아보기 어려움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해 주는 좋은 증거라고 하겠다.

(3) 表現·修辭面

蘆溪詩歌의 表現상의 특징은 立議論의 意境에 걸맞게 直叙의이며 설명적이라는 데에 있다. 즉 鋪陳의 方法의 典型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쇼 훈적 류마 하고 엄실이 호는 말삼 親切호라 너긴 집의 달 업슨 黃昏의 허위 허위 다라가서 구디 다든 門밖기 어득허 혼자 서서 큰 기춤 아합이를 良久토록 호은 後에 어화 기 뒤신고 廉恥업산 너옴노라 初更도 거원더 기 잊지 와 거신고 年年에 이러호기 苟且호 즐 알진만는 쇼 업슨 窮家에 혜염 만하 왓삼노라.

(陋巷詞, 蘆溪先生文集 卷三)

‘陋巷詞’에서 蘆溪가 소를 빌리러 가는 귀절인데, 소를 빌리러 가는 作者의 미안스런 마음에서 어려워 주저주저 하는 모습 및 대화와 先約을 해놓고서 破約이 되겠기에 일부터 능청을 떠는 소주인의 심리가 마치 한편의 산문을 보는 듯하게 直叙的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교적 鋪陳의 方法이 介在되기 쉬운 歌辭를 덮어 두고서라도 時調와 漢詩에서도 直叙의이며 설명적인 표현은 다음의 몇몇 예에서 볼 수 있듯이 蘆溪詩歌의 表現上 근간을 이루고 있다.

父母 섬기기를 至誠으로 섬기리라
 鷄鳴에 盥漱하고 煖寒을 못조오며
 날마다 侍側奉養을 沒身不衰 호오리라 (父子有親, 蘆溪先生文集 卷三)

28) 草野愚慵一箇身 念時憂國暗復神 聖恩未報頭先白 西望長安淚濕巾

聖恩이 岡極호 줄 사름들아 아나손다
 聖恩 곳 안니면 萬民이 살로소나
 이 몸은 岡極호 聖恩을 감고 말려 호노라 (君臣有義, 蘆溪先生文集 卷三)

平生 願하는 바 낚시질과 밭갈이라
 낚시질은 홀로 되나 밭갈이는 어렵네
 다행허도 힘센 소 하나 얻게되면
 비온 후의 봄밭을 밟듯도록 일구리 (耕田歌十韻, 蘆溪先生文集 卷一)²⁹⁾

겹겹이 쌓인 푸른 산 아래
 시내물 따라 두어칸 집을 지었네
 바람이 맑아 여름나기 좋으나
 솔이 푸르므로 봄을 여희게 어렵네 (蘆洲幽居, 蘆溪先生文集 卷一)³⁰⁾

이렇게 直叙의이며 설명적인 표현방법이 蘆溪詩歌의 주축을 이루고 있음에 따라 修辭法上 비유적인 것은 별로 찾아보기 어렵고, 그대신 의미보조나 관념을 배가하기 위하여 用事가 비교적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바 그 代表的인 몇몇의 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盤中 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누다
 袖子 안이라도 품업죽도 호다디논
 품어 가 반기리 업슬서 글노 설워 호누이다. (早紅柿歌, 蘆溪先生文集 卷三)

王祥의 鯉魚잡고 孟宗의 竹筍억거
 검던 멀리 회도록 老來子의 오슬 입고
 一生에 養志誠孝를 曾子처럼 호리이다 (蘆溪先生文集 卷三)

貧而無怨을 어렵다 호건마는 너生涯 이리호더 실은 뜻은 업노왜라 簞食瓢飲을 이
 도 못히 너기로라 (陋巷詞, 蘆溪先生文集 卷三)

歷山에서 밭갈이한 舜임금은 누구인가
 伊尹 또한 聖賢으로 莘野에서 밭갈았네 (耕田歌十韻, 蘆溪先生文集 卷一)

그런데, 蘆溪가 驅使한 用事는 비교적 평이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관용화된 故事나 典例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위에 引用된 詩歌에서만 보더라도 孝의 意境에 사용된 陸績·王祥·孟宗·老來子·曾子의 故事, 安貧樂道의 意境에

29) 每願生平鈞與耕 雖能自釣未能耕 如今幸得羸牛一 雨後春田帶月耕

30) 重疊青山下 臨溪卜數間 風清經夏易 松碧送春難

사용된 貧而無怨·簞食瓢飲 등 論語에서의 典例, 勸農의 意境에 사용된 舜 임금과 伊尹의 故事 등은 그 좋은 例가 될 것이다.

直叙的이며 설명적인 표현, 곧 鋪陳의 표현방법과 修辭法으로 평이하면서도 일반적으로 관용화된 用事의 사용은 立議論的인 蘆溪詩歌의 意境으로 볼 때 的實하게 照應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立議論的 詩歌에서는 당연히 意境의 전달이 爲主일진대, 直叙的이며 설명적인 표현은 모호성을 방지해 주었고 일반적으로 인식된 聖賢의 史績이나 言行 및 관용화된 故事의 이용은 그만큼 표현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겠기 때문이다.

(4) 聲律面

蘆溪詩歌의 聲律面을 특히 漢詩의 경우로 보자면, 한 작품의 脚韻이 모두 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許多함이 그 특징이다. 그 例를 들어보면

不貴人所貴 不貪人所貪

江山風與月 是我百年貪

(蘆溪先生文集, 卷一)

草野常懷慷慨心 傷時憂國百年心

多病人間頭已心 可憐虛老一丹心

(蘆溪先生文集, 卷一)

과 같은 것들인데, 몇개의 例를 더 들면 ‘耕田歌 十韻’의 10首의 脚韻은 모두 ‘耕’이요, ‘天字十五韻樂山亭主人’의 脚韻은 모두 ‘天’이며 長詩 ‘安分吟’의 脚韻은 ‘而已矣’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例는 일종의 一韻重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漢詩의 押韻上 破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반복된 脚韻이 가져다 주는 효과는 修辭法上的의 하나인 반복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意境에 대하여 강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음은 周知의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立議論的 詩歌가 지향하는 선전 및 계도의 효과를 거두는 데는 상당한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立議論的 詩歌를 지향하는 載道的 文學觀을 지닌 文人들이 聲律上的 破格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은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러므로 蘆溪의 漢詩의 이러한 例는 立議論的인 意境을 드러내는 데에 강조의 수단으로 사용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結

以上の考察로써, 蘆溪詩歌는 우리의 古典詩歌의 創作方法上의 하나인 立議論的 詩歌의 創作方式에 충실했던 作品인 것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本考가 의도했던 傳統詩論의 모색과 그것을 토대로 한 古典詩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고 하겠다. 아울러 그로 인하여 蘆溪의 詩歌創作上의 源泉을 이해할 수 있어 合理的인 작품평가에 조그마한 보탬이나마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직은 만족할만한 결과가 이룩되었다고 할 수 없다. 蘆溪詩歌의 경우 하나만 가지고 傳統詩論을 토대로 한 古典詩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다 할 수 없고, 우리의 傳統詩論 자체에 대한 論斷이나 평가없이 現代詩論과의 合理的인 接脈을 이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蘆溪詩歌 자체에 대해서도 궁극적인 文學史的 意義를 내리지 못한 것은 本考가 가지는 결함이 될 것이다.